

VR 观赏和日本画技法体验活动

VR 과 일본화 기법 체험 프로젝트

A Virtual-reality Environment and Nihonga Painting Workshop



作为展览会的关联项目，
将举办大乘寺襖绘(画在拉门上的画)的
VR观赏和日本画技法体验活动。

VR体验的举办时间为展览会开馆日开馆时间内。
从11月6日(周三)起将在京都会场举办VR(虚拟现实)活动。
关于开馆日、举办时间的详细情况，请查看官网。
<https://okyokindai2019.exhibit.jp/>

主办
东京艺术大学、京都国立近代美术馆、文化厅、
日本艺术文化振兴会

展览会会期
东京艺术大学大学美术馆
2019年8月3日(周六)至2019年9月29日(周日)
京都国立近代美术馆
2019年11月2日(周六)至2019年12月15日(周日)

大乘寺襖绘 VR

可在VR空间中360度全视角欣赏大乘寺(亦被称为应举寺)的襖绘。此外，通过智能手机访问会场的二维码，即可游走大乘寺襖绘所在的房间，可借此了解在展览会会场上展示的襖绘，其原本所处的空间模样。

展览会举办概要

18世纪，圆山应举于京都开创了立足实物写生精神的写生画这一类型。应举的写生画描绘得非常精致细腻，获得了巨大的人气，并形成了圆山派这一流派。四条派鼻祖吴春起先是跟着与谢芜村学习的，后来，芜村逝去后，他又学习了应举的画风，因此，他的画风是在应举的写生画中加入了对应举的潇洒情趣。以应举、吴春为源头的圆山、四条派可谓人才辈出，先是出现了盐川文麟、森宽斋、幸野樾岭等大家，后来又出现了近代京都画坛起到了领导作用的竹内栖凤、山元春举、上村松园等人。本展中，将对从应举、吴春到近代为止的谱系展开追溯，以此来揭示圆山、四条派的全貌，并揭开京都画坛面貌的一角。

希望通过本展的展示作品和对大乘寺的介绍，能够令您对日本文化有一个更深的理解，
同时也能给您创造一个就“日本人和自然”进行考虑深思的机会。

본 전람회 전시작품 및 다이조지 절을 통해 일본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일본인과 자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designed to provide viewer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 and Japanese culture as a whole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people and nature.



전람회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다이조지 절
맹장지 그림의 VR 과 일본화 기법 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VR의 개최기간은 전람회 개관일의 개관시간 내입니다.
교토 행사장의 VR 개최는 11월 6일(수)부터입니다.
개관일, 개최시간의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해 주십시오. <https://okyokindai2019.exhibit.jp/>

주최
도쿄예술대학,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문화청,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전람회 회기
도쿄예술대학 대학미술관
2019년 8월 3일(토) - 2019년 9월 29일(일)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
2019년 11월 2일(토) - 2019년 12월 15일(일)

다이조지 절 맹장지 그림 VR

오코데라(오코의 절)로 불리는 다이조지 절의 맹장지 그림을 360도 파노라마 화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 VR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회장의 QR 코드에 접속하면, 다이조지 절 맹장지 그림이 있는 방을 둘러보면서, 전람회 회장에 전시되어 있는 맹장지 그림이 본래는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람회 개최 개요

18세기 교토에서 마루야마 오코는 실물 사생의 정신에 근거한 사생활 장르를 개척하였습니다. 정밀하게 그려진 오코의 사생활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마루야마파라는 하나의 유파를 형성했습니다. 시조파의 선조인 고순이 처음에 요사 부손에게서 배웠고, 부손이 사망한 후에는 오코의 화풍을 배운 결과, 오코의 사생활에 부손의 소재한 경취를 가미한 화풍을 확립하였습니다. 오코, 고순을 원전으로 하는 마루야마·시조파는 시오카와 분린, 모리 간사이, 고노 바이레이 등을 거쳐 근대 교토 화단을 견인한 다케우치 세이호, 야마모토 슌코, 우에무라 쇼엔 등을 배출했습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오코, 고순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계보를 확인해 보면서, 마루야마·시조파의 전모를 살펴봄과 동시에 교토 화단의 한 측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In conjunction with the *Legendary Kyoto Painting from Maruyama Okyo to the Modern Era* exhibition, we are pleased to present a virtual-reality environmental, which recreates the *fusuma* (sliding door) paintings at Daijo-ji Temple, and a *Nihonga* painting workshop.

The virtual-reality program will be on view throughout the exhibition period inside each museum. This program in Kyoto will start from Wed., November 6. For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exhibition website: <https://okyokindai2019.exhibit.jp/>

Organized by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the Agency for the Cultural Affairs, and the Japan Arts Council

Exhibition Period
Sat., August 3 to Sun., September 29, 2019 at the University Art Museum,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Sat., November 2 to Sun., December 15, 2019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Daijo-ji Temple Fusuma Painting Virtual-reality Environment

Visitors can experience a virtual-reality environment, creating a sweeping 360-degree view of the fusuma (sliding door) paintings at Daijo-ji Temple (commonly known as Okyo-ji). By using your smartphone to scan the QR code in the venue, you will also be able to see the space where the paintings are usually displayed in the temple.

In 18th-century Kyoto, Maruyama Okyo carved out a new genre of realistic painting based on sketching from life. Maruyama's minutely depicted works enjoyed tremendous popularity, leading to the formation of the Maruyama school. Meanwhile, Goshun, who had studied both with Yosa Buson and Maruyama after the former's death, founded the Shijo school by infusing Maruyama's realism with Buson's elegant charm. Maruyama and Goshun in turn inspired the Maruyama-Shijo school, which produced a succession of artists including Shiokawa Bunrin, Mori Kansai, and Kōno Bairei followed by leading figures in the modern Kyoto art world such as Takeuchi Seiho, Yamamoto Shunkyo, and Uemura Shōen. In this exhibition, we trace this artistic lineage, which stretches from Maruyama and Goshun to the modern era, while presenting a full picture of the Maruyama-Shijo school and providing insight into various aspects of the Kyoto art world.

